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과 소련의 역할

김보미(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시기 북한과 중국의 갈등관계와 이들 사이에서 소련의 중재적 역할을 밝히는 데 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서명하기까지, 북한과 중국이 항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다룰 수 있는 자료들의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한국전쟁 시기 북중관계의 갈등적 측면은 제한적이고 표면적으로 다루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1950년 10월 중국의 참전 이후 조중 연합사령부의 설립과 지휘권 문제, 남진과 휴식,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갈등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을 맡았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갈등 해결은 서로의 이해와 양보를 수반한 것이 아닌, 소련이 북한을 설득해 중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중국이 북한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믿었으나 전쟁이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갈등 상황들은 해소되었고 북한은 중국의 참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결국 3년에 걸친 전쟁 동안 북·중 양국은 군사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갈등과 화합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왔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김일성은 북·중관계를 ‘혈맹’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주제어: 북·중관계, 조중연합사령부, 한국전쟁(6·25전쟁), 소련, 정전협정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 북
한과 남한 두 국가 중 어느 측에 의해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의 과정과 의미는 다양
한 각도와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가치는 전쟁 종료 후 60주년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이
연구 또한 한국전쟁의 과정과 의미를 새롭게 고찰해보고자 하는바,
북·중 양국의 갈등을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역사를 새롭게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은 북·중동맹의 전개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
다. 1949년 가을,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어 대륙의 주인이 된 중국공
산당은 내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느라 1950년까지 북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 10월 19일 중국의 참전과 이후
북한에서 중국지원군의 역할은 북한지도부가 마오쩌둥(毛澤東)과 중국
공산당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의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지 겨우 일 년 남짓
한 중국지도부가 북한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3년이나 투입하였다는
점은 북한지도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은 참전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한 덕분에 이후 북한의 문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휴전회담의 당사자로서 유엔군 사령관과 휴전협정문에 서
명했으며, 제네바 회의와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서명하기까지 북한과 중국이 항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온 것만은 아니었다. 3년에 걸친 전쟁 동안

북·중 양국은 군사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갈등과 화합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왔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혈맹’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한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자료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제한적이고 표면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열람이 가능해진 구소련과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기록보관소의 자료들에 의거하여, 한국전쟁에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의 북·중 갈등관계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1950년 10월 중국의 참전 이후 벌어진 조중연합사령부의 설립과 지휘권 문제, 남진과 휴식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 정전협정 체결을 둘러싼 북·중의 대립,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소련의 중재적 역할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아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본문에는 구소련, 중국, 동유럽에서 새롭게 발굴된 한국전쟁과 관련한 외교문서와 북한 1차 자료들이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홍보성과 지향성,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역사 소급 및 일부 내용의 수정 등의 이유로 북한의 1차 문헌에서 비롯되는 분석의 오류가능성은 새로 공개된 외교문서들과 2차 자료 및 기타 외부 자료들을 통해 상호 검토하고 보완하였다.¹⁾

1) 이 논문에 활용되는 구소련의 외교문서는 모두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북한국제문서프로젝트(North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http://www.wilsoncenter.org/program/north-korea-international-documentation-project>). 중국어 자료의 경우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기밀 해제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공식 문헌들의 경우 정치적 선전 등의 이유로 배제하려 노력하였다. 추후, 연구의 사실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국, 북한 내부 자료 및 제3국 자료의 활용과 첨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둘러싼 대립

1)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수행 통일 문제

한국전쟁에서 스탈린(Joseph Stalin)이 중국의 참전을 유도하면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항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련의 소극적인 자세가 중국과 북한, 북한과 소련, 소련과 중국과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²⁾ 스탈린은 소련의 국익 추구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인민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였고 소련은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전쟁과 관련된 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소련은 한반도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50년 10월 19일, 마오쩌둥은 출병준비를 완료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도강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부대 이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였다. 중국지도부는 지원군의 지휘 기구를 강화하고자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부주석 평더화이(彭德懷)의 지휘소와 13병단 사령부(동북변방군 사령부)를 합병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평더화이는 사령원 겸 정치위원에 임명되었다.³⁾ 마오쩌둥은 중국의 참전을 결정하기까지 몇 번의 망설임을 보였으나 일단 전쟁에 참여하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지원군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작전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상황이

2)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서울: 선인, 2010), 377쪽.

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 157쪽.

긴박해지면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파병 이후 지휘, 통신, 보급, 운수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조중 군대는 의사소통 문제와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 벌어지는 군사작전상의 실수 등으로 인한 문제에 자주 직면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한 지휘권의 통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건 속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지휘가 중국인에게 돌아간다면 조선인민군의 지휘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군 최고통수권자이기 이전에 주권과 국가의 존엄성이란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젊은 지도자였다. 그런 그에게 조선인민군의 지휘권을 중국지원군사령부에 이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조중연합사령부를 구성할 때 김일성이 북한의 연합군 지휘권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졌다.⁴⁾ 더군다나 지원군 사령원 평더화이는 인민군의 전술을 한마디로 ‘유치한’ 것으로 보았으며 “나는 중국 및 조선의 인민과 수십만 병사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⁵⁾ 그는 조선인민군의 지휘체계가 조잡하며 북한지

4) 연합군의 지휘권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스탈린은 비교적 간단하게 접근하였다. 중국이 파병을 결정하기 전인 10월 1일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보낸 전보에서 “중국인 사단들은 중국군의 엄호 아래에 지원군의 자격으로 출병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중국군의 자율적 군사지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었다. CIPHERED TELEGRAM,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and Zhou Enlai, 1 Octo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34, Listy 97~98.

5) 평더화이는 중앙군사위원회에 보낸 전보에서 “조선로동당의 징병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16~45세의 남자는 모두 입대시키고 있다. 입대하는 노동자들의 가족

도부가 장기적인 전략도 없으면서 모험주의적 성향만 강하다고 평가했다.⁶⁾ 평터화이의 입장에서도 중국군을 조선군이 지휘하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1950년 10월 21일, 평터화이는 일단 김일성과 직접 만나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박일우를 부사령원 겸 부정지위원으로 두는 데 동의를 얻어냈다.⁷⁾ 10월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지원군 인사가 통지되어 박일우는 전체 4명의 부사령원 중 1명, 2명의 부정지위원 중 1명, 2명의 당 부서기 중 1명으로 임명되었다. 박일우의 직책은 중국인민지원군 내 제3인자에 해당하는 대우였다. 이때 연합군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던 것으로 보이나, 김일성은 근본적으로 연합군 편성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참모진을 보내 상호 연락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지휘체계의 통일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단지 양 군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만이 오갔다.⁸⁾ 김일성은 평터화이에게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작전계획 통보의 필요성 정도만을 언급하였으며, 군사작전 과정에서의 상호 협조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⁹⁾

들 중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일반 군중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터화이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1950년 10월 25일), 차이칭원 방담기록;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83~384쪽에서 재인용.

- 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411쪽.
- 7)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서울: 오름, 2009), 88쪽.
- 8)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우선 새로 편성된 조선인민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훈련 중이었던 때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王焰等, 『彭德懷傳』(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3), p.403; 中國軍事科學院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制2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 p.167; 양영조, “6·25전쟁시 중국군의 지구전 전략과 군사개혁: 조중연합군사령원 팽덕회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33집(2005), 188~189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전황이 변하면서 조중 군대를 통일하여 운영·지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전역기간에 중공군은 국군 6사단에 괴멸적 타격을 입혔으며 국군 1사단·8사단, 미 기병1사단에도 타격을 가했다. 이 전투로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¹⁰⁾ 그러나 조중 군대의 통일된 지휘와 협조체제가 부재하여 전투 상황에서 공조가 어려웠으며 물자 공급, 교통 운수 등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양국 군대의 작전 지휘가 분리됨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고 심지어 지원군과 인민군이 대적하는 일까지 발생했다.¹¹⁾ 이렇게 되자 평더화이는 김일성에게 작전수행 중의 통일적 지휘에 대해 제안하였고 인민군 총사령부와 지원군 총사령부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자 하였다.¹²⁾ 11월 7일 평더화이는 박일우에게 김일성을 만나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민군과 지원군의 지휘를 둘러싼 문제는 각국의 주권과 자존심이 달린 사안이었으므로 양측이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탓이다.¹³⁾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마오쩌둥은 스탈린을 통해 김일성

9) 김일성은 이외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지형의 생소함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평더화이에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연락원과 통역원을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과 한 담화(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53쪽.

10)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63쪽.

11)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 500쪽.

12)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86쪽.

13) 한 예로 마오쩌둥은 11월 7일 김일성이 연설 중 “지원군이 인민군의 통일된 지휘 아래 인민군과 협력하여 침략자들과 대결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너무 많이 언급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87쪽.

을 설득함으로써 지휘통수권 문제를 조율하고자 하였다.

2) 소련의 개입과 중국의 군사 지휘권 획득

이즈음 스탈린은 소련의 개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중국이 참전한 이상 소련인 장교와 군사고문단들이 조선인민군의 사단 조직을 위해 굳이 한반도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에 빠졌다.¹⁴⁾ 그러나 소련군의 철수를 희망하는 스탈린과는 달리, 김일성은 중국에서 수십만의 지원군이 투입되었음에도 중국보다 소련에 더욱 의지하고 있었다. 북한지도부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모든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소련을 가장 신뢰하였기 때문에 소련에 이은 또 하나의 ‘대국’을 섬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향후 조직할 인민군 사단의 교육을 위해 현재 주둔해 있는 소련인 군사고문관들을 북한에 남겨달라고 부탁하였다.¹⁵⁾

이런 와중에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가능한 빨리 평덕화이 및 가오강(高崗)과 직접 만나서 조중연합군을 편성한 후 작전을 수행할 것을

14) 스탈린은 슈티코프에게 “북한 정부가 앞으로도 소련 장교들과 군사고문관들이 함께하길 희망하는지, 아니면 우리보다 중국인들을 더 선호하는지 아직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장교들과 고문관들을 선택하라고 북한에 강요할 수 없다. 김일성과 이와 관련해 논의하라”고 말했다. 얼핏 들으면 김일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련 장교들과 고문관들을 북한에 남겨 두려는 슈티코프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Telegram from Stalin to Shrykov, 1 Novem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47,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161.

15) Letter from Kim Il Sung to Stalin, 2 November 1950, Printed in Voyna v. Korea 1950~1953gg: vzglyad cherez 50 let [The 1950~1953 War in Korea; the View After 50 Years], pp. 84~89.

제안하였다. 핑더화이는 가오강과 함께 11월 15일 김일성과 소련대사 슈티코프(Terenti Stykov)와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지휘를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북·중·소 3인 소조지휘부 편성안을 제시하였다. 슈티코프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는 소련의 최신 장비를 가지고도 패배한 조선인민군의 무력함과 열악한 장비로 적군을 물리친 중국인민지원군을 비교하여 지적한 뒤, 중국 측의 통합지휘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¹⁶⁾ 다만 아직까지 모스크바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시가 없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한편으로 11월 13일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김일성·슈티코프·핑더화이로 구성된 3인 소조를 결성하여 이들이 부대 편성, 작전, 적의 후방 진입 및 이와 관련된 제반정책들을 포함한 군사정책의 결정을 책임지고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일치단결한 전쟁 수행을 도모하자는 핑더화이의 의견을 전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동의한다면 그가 직접 이 사안을 슈티코프와 김일성에게 제안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이 관철되기를 희망하였다.¹⁷⁾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중국지도부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지만 스탈린은 김일성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스탈린은 미국을 신경 쓰느라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기에, 소련이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중국의 통일되고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기대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자신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11월 17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으로부터 조중연합사령부 구성에 대한 답을 받았다. 스탈린은 역시나 마오

16)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88쪽.

17) 위의 책.

쩌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오쩌둥은 평더화이와 가오강에게 전보를 보내 스탈린과 주중 소련 총군사고문인 자하로프(Marvei Zakharov)가 조선인민군과 중국지원군의 통일적 지휘를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이에 대한 김일성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¹⁸⁾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전보를 받은 지 이틀 후인 11월 15일 김일성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중연합사령부를 구성하여 통일적 지휘하에 유엔군과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에 직면한 김일성은 그로부터 보름이나 지난 12월 1일에서야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모스크바의 지시를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전보 내용이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공개되었고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정치위원들이 “스탈린의 지령이 옳았으며 조선의 상황에 적절한 결정”이라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통일된 지휘체계 문제에 관한 언급은 옳으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령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인이어야 하며 부사령관은 조선인이어야 한다”고 덧붙임으로써 사실상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보의 말미에 “사회주의자로서 그리고 당신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우리는 당신의 지령을 따르고 당신의 지령을 우리의 계속적인 업무를 위한 지침으로 여기고 있다”며 연합사령부 편성에 대한 스탈린의 요구가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와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¹⁹⁾

18) 『抗美援朝戰爭史』第2卷, p. 167;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周恩來軍事活動紀事(1818~1975)』, 下卷(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p. 164;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88~389쪽에서 재인용.

19) Letter from Kim Il Sung to Stalin, 1 December 1950, Printed in Voyna v Koree 1950~1953 gg; vzglyad cherez 50 let[The 1950~1953 War in Korea; the view

19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2차 전역이 진행되었다. 마오쩌둥은 다시 한 번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통일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중연합사령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류사오치(劉少奇)가 베이징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 김일성은 12월 3일 베이징에 위치한 마오쩌둥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중국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작전 및 전선의 일체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연합사령부 구성에 합의했다.²⁰⁾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스탈린이 전보를 보내 중국과 북한의 군대의 지휘의 통일성을 이야기하였으며 지원군이 전투 경력이 풍부하므로 중국 동지가 정직(正職)을 조선 동지가 부직(副職)을 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달하였다.²¹⁾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12월 4일 조선인민군과 중국지원군의 조중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스탈린의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작전 지휘권까지 넘겨받게 된 마오쩌둥은 이제 중국에서도 직접 주요 작전을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평덕화이가 맡았으며 북한 측 대표가 맡아야 할 부사령관 자리에는

After 50 Years], pp. 84 ~89.

- 20)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림은 김일성의 방문이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중앙에 참전에 따른 사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500쪽. 연합사령부의 창설은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베이징 방문으로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조중연합사령부 창설 허가 및 북한 설득 요청에 따른 스탈린의 조율이라는 큰 그림 속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202쪽. 와다 하루키는 조중연합사령부가 소련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21)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정치국 회의에서도 스탈린의 지시에 동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89쪽.

인민군 총참모장 김웅, 부정치위원은 박일우가 맡았다. 그리하여 작전 및 전선에 관한 모든 활동은 연합사령부의 지휘로 귀속됨과 동시에 후방의 동원, 훈련, 군정, 경비 등의 사무는 북한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다.²²⁾ 이때에 연합사령부는 적시에 후방에 요구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중연합사령부가 설치된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회담 이후 저우언라이는 「중조연합지휘부 성립에 대한 중조쌍방향의문」을 작성하였다.²³⁾

평양을 되찾은 바로 이튿날인 1950년 12월 7일, 김일성은 북한으로 돌아와 평덕화이와 함께 조중연합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군사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평덕화이에게 북한의 고유한 제도와 모순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완고하게 이식시키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²⁴⁾ 12월 9일, 김일성은 평양시를 되찾는 데 있어서 조선인민군 부대와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의 협조를 거듭 칭찬하면서 북한의 인민들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⁵⁾

22) 조선로동당은 1951년 5월 3일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북한의 군사정치정세와 구체적 실정, 전투 성과와 경험 등을 제때 소개시켜주기 위한 중문(中文)신문 『전우(戰友)』를 발간하기로 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299호)했다. 신문은 1만 부씩 매주 2회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책임주필은 류문화로 임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1년 5월 3일),” 『김일성전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0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299호: 신문 『전우』를 발간할데 관하여(1951년 6월 14일),” 『북한관계사료집 24』(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234쪽.

23) 합의문 전문은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周恩來軍事活動紀事(1818~1975)』, 下卷, pp. 168~169.

24) 王焰(主編), 『彭德懷年譜』(北京: 人民出版社, 1988), p. 453; 양영조, “6·25전쟁시 중국군의 지구전 전략과 군사개혁,” 189쪽에서 재인용.

25) “평양시 해방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호소문(1950년 12월 9일),”

이렇게 하여 조중연합사령부 편성을 둘러싼 모든 논란들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기 전부터 가능한 최단기간에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마오쩌둥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에 반드시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다만 전쟁 경험이 일천한 인민군 사령부보다 지원군 사령부가 급박한 상황에서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작전 지휘권의 통일 문제를 국가 주권을 지키는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던 김일성을 스탈린이 설득해주길 바랐다. 스탈린 또한 소련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가진 중국의 지휘 아래 인민군과 지원군이 일사불란하게 싸워주길 바랐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중·소 양국의 합의 속에서 연합사령부 창설을 강요하는 양국의 압력에 북한이 휘말리는 모습이었다.

김일성은 조중연합사령부 창설을 위해 베이징까지 날아갔음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자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 측 자료들은 조중연합사령부 편성 과정에서 김일성이 큰 불만 없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지휘권이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란 점에서 작전 지휘권의 이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조선로동당위원장으로서의 김일성의 위신에도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²⁶⁾ 김일성의 불만은 제2차 전역이 끝나고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당은 외세에 의존하여 승리를 바라선 안 되며 조선인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34~437쪽.

2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414쪽.

은 조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쏘련 인민이 도와주고 중국인민지원군이 나와서 도와주니 승리는 꼭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남의 덕에 살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경향입니다. 누가 어떻게 도와주든지 간에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 조선사람입니다. 주인이 더 많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핵심이며 선봉대인 로동당원들이 주동적으로 일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력갱생여히는 우리 인민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의 사업과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에 달려있습니다.²⁷⁾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를 평터화이가 맡게 되면서 전쟁은 사실상 유엔군과 중국군의 대결로 치달았다. 1951년 4월 15일 중국에서 훈련을 받던 부대가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인민군은 모두 7개의 작전군단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중 4개 군단은 연합사령부의 지휘, 3개 군단은 인민군 총사령관의 직속 부대가 되었다.²⁸⁾ 중국 군대는 연말까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한반도로 침투하였고 소련 공군은 11월 1일 압록강 상공의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참전하였다.²⁹⁾ 주중 소련 총

27)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73쪽.

28)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1쪽.

29) 소련 공군은 중국 공군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어 대신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받았으나 급박한 전장에서 러시아어의 사용은 숨길 수가 없었다. 미 공군은 일찍이 무선 통화 속에서 러시아어를 들었으며 공중전에서 이들의 얼굴을 보았으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보고를 듣고도 소식을 봉쇄하려 했다. 미국 역시 소련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선즈화(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제3권

군사고문인 자하로프는 안동-신의주 지역에서 MiG-15기를 조종하는 소련인 조종사들이 F-82 비행기 두 대를 격추시켰음을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³⁰⁾ 이 밖에도 소련 공군은 참전한 후 12일 동안 미군 비행기 23대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올려 마오쩌둥을 흡족하게 하였다.³¹⁾ 그러나 위장한 소련 공군은 인민군과 지원군 중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1951년 1월 초, 자하로프는 소련 공군 2개 사단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선에 진입하여 지안-강계, 안동-안주 노선을 엄호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초에는 중국 공군 5개 사단, 북한 공군 3개 사단이 참전하였다. 소련 고문의 동의하에 중국은 공군 또한 통일적 지휘 체계를 갖출 것을 북한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협의를 거쳐 연합사령부 설립의 원칙을 참조해 1951년 3월, 조중공군연합집단군사령부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련 공군은 정치적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를 이유로 연합사령부에 가입하지 않았다.³²⁾

제1호(2000), 61쪽.

30) Ciphred Telegram, S. E. Zakharov, Soviet Military Representative in Beijing, to Fyn Si (Stalin), 2 Novem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35, Listy 71-72 and AVPRF,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187~188.

31) Telegram from Mao Zedong to Stalin, via Zakharov, 15 Novem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35, Listy 116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 189.

32)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周恩來軍事活動紀事(1818~1975)』, 下卷, pp. 178~179쪽;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1쪽에서 재인용.

2. 남진과 휴식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갈등

1) 평터화이의 일방적인 휴식 결정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조중연합군은 몇 차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유엔군은 2차 전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유엔군은 12월 1일에는 서부전선에 이어 동부전선에서도 대규모의 후퇴를 시작했다. 이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보내 “당신이 거둔 성공은 지도부에 있는 나와 내 동지들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련 인민을 기쁘게 했다”며 중국지원군이 거둔 성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³³⁾ 여세를 몰아 조중연합군은 12월 6일 마침내 평양을 탈환하였으며 16일에는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2차 전역을 승리로 이끌고도 미 공군기로 인한 북한과 조중연합군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1차 전역을 치르면서 중공군의 참전을 알아차린 미군은 공군기를 동원하여 후속 부대의 추가 도강을 방해하면서 전투장소로 이동하는 지원군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했다.³⁴⁾ 2차 전역 시기에 압록강을 건넌 제9병단은 각 부대가 전투지점에서 야간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병력의 30%가 동상에 걸려 전투력

33) 스탈린은 소련군이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독일군과의 전투 경험을 통해 현대전에서 경험을 쌓고 최신식의 잘 무장된 군대로 변모하였던 사실을 예로 들어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중국군은 현대전(戰)을 훌륭히 경험하고 있으며 중국군은 이제 완전히 최신의, 잘 무장된, 가공할 만한 군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Telegram from Stalin to Mao Zedong, 1 Decem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36, List 5.

34)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65쪽.

을 상실하였다.³⁵⁾ 또한 중국에서 들어온 노무자들이 대부분 도망을 가 부상자 구호와 후송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부상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38.4%에 달했다.³⁶⁾ 전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져 27군 소속 79·80사단은 11월 말~12월 초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6일간의 전투를 치르면서 보병연대와 중대체계의 대부분이 무너졌다. 2개 사단은 각각 1,000여 명 정도의 2개 연대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³⁷⁾

평터화이는 두 차례의 대규모 전투 후, 부대원들의 피로와 부상자 증가, 물자 보급, 부대 재편 등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애초 계획은 몇 개월의 휴식 끝에 제3차 전역을 2~3월경에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38선 이북에서 멈추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38선을 넘겨 남으로 진격할 것을 요구했다.³⁸⁾ 따라서 제3차 전역은 1950년 12월 31일 시작되어 1951년 1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때에도 조중연합군은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탓에 야간에만 전투를 강행했다. 조중연합군은 12월 31일 새벽에 200킬로미터의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했으며 3차 전역을 통해 37도선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³⁹⁾ 1월 3일에는 66군이 춘천시를 차지하였고 특히 1951년 1월 4일에는 중국지원군 116 보병사단과 117 보병사단이 서울을 재점령하여 유리

35) 쑨요우지에(孫佑杰), 『압록강은 말한다』, 조기정·김경국 옮김(서울: 살림, 1996), 83쪽.

3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65쪽.

37) 쑨요우지에(孫佑杰), 『압록강은 말한다』, 83쪽.

38) 겨울동안 휴식하겠다는 평터화이의 생각은 문화대혁명 시기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모토타이 노부오(下斗米 伸夫),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120쪽.

39) 홍쉐즈(洪學知),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서울: 고려원, 1992), 160쪽.

한 고지에 올라섰다.⁴⁰⁾

그러나 유엔군이 계획적으로 철수한 탓에 조중연합군은 일부 지역을 점령한 것 외에는 유엔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였으며 생포한 포로도 3,000여 명에 불과하였다. 평터화이는 비록 서울을 점령했으나, 적들이 한강 이남에서 수비선을 형성하고 김포공항을 통제하며 병참 보급을 위해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조중연합군은 적군의 계속되는 공군력과 화력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평터화이는 적군에 한 번 더 공격을 시도하여 이들을 한강 이남 지역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면 김포공항과 인천항을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봄에 있을 공격에 대비해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터화이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8·39·40군은 명령을 기다리며 3일간 휴식을 취할 것이며 인민군 1사단 1군은 서울에 남아 방어를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⁴¹⁾ 조중연합군은 7일 수원, 8일 인천과 원주를 점령하였고 적을 37도선 부근의 평택-안성-제천-삼척 선까지 쫓아갔다. 그러나 평터화이는 지원군이 지쳐 있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우려하여 적들이 낙동강 부근까지 조중연합군을 유인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1월 8일 진격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했다.⁴²⁾

38선을 회복한 데 이어 서울까지 진격한 마당에 진격 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김일성은 불만을 가졌다. 그는 이미 새해 연설에서 1951년 안에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세운 상태였다.⁴³⁾

40) Ciph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transmitting 4 January 1951 message from Peng Dehuai, Kim Son, and Pak Il U to Kim Il Sung, 7 January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36, Listy 88~90.

41) *Ibid.*

42)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4쪽.

이런 목표를 설정한 이상 김일성에게 한반도에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김일성은 부대의 휴식과 정돈에 필요한 시간은 한 시간이면 충분하며 휴식이 길어진다면 하천과 논, 밭의 얼음이 녹아내려 부대 이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적들이 장비를 보충하고 숨을 돌릴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⁴⁴⁾ 소련 역시 진격 중지와 휴식 주장에 반대하였다. 라주바예프(V. N. Razuvaev) 중장(후일 소련대사)은 “누가 전투에서 이기고도 적을 추격하지 않는가? 이런 작전을 지시하는 사령관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비난하였으며 조중연합군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할 것을 요구했다.⁴⁵⁾ 1월 9일 오전 소식을 접한 자하로프 또한 휴식을 취한다면 적군에게 숨 돌릴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2) 휴식결정에 대한 북한의 비타협적 자세

결과적으로 조중연합군은 북한과 소련이 중국지도부가 조중연합군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중국 사령부는 몇 차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나 중국이 어떻게 소련과 북한의 반대 의사를 찬성으로 돌려놓았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스탈린이 다시 한 번 평더화이의 손을 들어주어 평더화이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의 지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지시함으로써 김일성

43) “1951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1951년 1월 1일),”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37~40쪽.

44)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4쪽.

45) 홍쉐즈(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169~170쪽.

이 순순히 장기간의 휴식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이 있다.⁴⁶⁾ 중국주재 소련대사 로신(Roshchin)이 소련외무성에 보낸 1951년 1월 13일 자 전보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김일성과 평덕화이에게 베이징으로 잠깐 건너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상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오쩌둥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최종 지휘권이 평덕화이에게 있음에도 김일성이 평덕화이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자 그를 직접 중국으로 불러들여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조중연합군의 휴식 결정은 거의 일방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월 14일, 마오쩌둥은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훈련하고 있는 약 10만 명의 조선인 신병들을 휴식과 재편성 기간인 다음 두세 달 안에 인민군의 여러 부대로 분산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여 인민군 내 모든 중대들은 완전히 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세 달의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아울러, 다음의 두세 달 동안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신병들을 부대에 투입하여 군을 재편하고, 부대의 무기를 강화하고, 신병들이 경험 있는 군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철도를 다시 건설하며 식량과 폭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교통과 후방 업무 증진을 제안했다.⁴⁸⁾ 마오쩌둥은 조중연합군이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

46)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7쪽.

47) Ciphred Telegram, Roshchin to USSR Foreign Ministry, 13 January 1951, APRF, Fond 45, Opus 1, Delo 336, List 122 and AVPRF, Fond 059a, Opus 5a, Delo 5, Papka 11, List 13.

48) Telegram from Mao Zedong to I. V. Stalin, transmitting 14 January 1951 Message from Mao to Peng Dehuai with Message from Kim Il Sung, 16 January 1951, APRF, Fond 45, Opus 1, Delo 337, II. 1~3.

비를 잘해나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⁴⁹⁾ 평덕화이 또한 1월 16일 저녁 김일성을 찾아갔으며 1월 18일 저녁까지 조중연합군이 휴식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침내 김일성을 포함한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는 두 달 동안 군대 재편과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평덕화이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헌영이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잃지 않아 평덕화이는 1월 17일에 다시 한 번 회유에 나섰다. 박헌영은 평덕화이가 충분한 준비 없이 위험한 진격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충분한 준비 후 진전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동의했다. 소련의 군사고문관들도 바로 다음에 있을 전투가 결정적인 전투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북한지도부와 뜻을 같이했다.⁵⁰⁾

결과적으로 본다면 북한과 중국, 소련이 모두 군사적 수단을 통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통일을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술적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과 소련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결국 몇 차례에 걸친 논쟁과 중국의 설득 끝에 북한과 소련이 중국의 뜻을 이해하고 조중연합군의 장기간 휴식에 동의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소련의 경우 후방에서 공군 지원 및 무기와 폭탄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 탓에 중국의 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중국이 참전한 후 10월 이후

49) *Ibid.*

50)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19 JANUARY 1951 TELEGRAM FROM PENG DEHUI TO MAO REGARDING MEETINGS WITH KIM IL SUNG, 27 JANUARY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37, LISTY 37~40.

벌어진 1~3차 전역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으니 소련 고문관들은 중국군의 용병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김일성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데에 대해 조중연합사령부 창설 당시 겪었던 불만과 함께 또 다른 억울함을 간직하고 있었다.⁵¹⁾

후일 라주바예프의 보고는 중국의 조중연합군 휴식 결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미군이 조선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중국군은 수원에서 38선 지역으로 철수하면서 대규모의 공격을 포기했으며, 종종 준비가 안 된 부대를 파견해 공격에 참가시키면서 노골적으로 38선 지역에서 전투를 중단”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중국지원군의 이 같은 행동이 “중국 지도자들에 대해 조선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존경심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인들도 중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당국에 보고하였다.⁵²⁾ 1955년 4월, 소련외무성의 페도렌코(N. Fedorenko)와 외국 관련의 공산당관계 부장 포노마레프(B. Ponomarev)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보고 내용의 일부는 1951년 당시 중국지원군 지휘부에 대한 북한 군부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51) 김일성은 이후 시작된 제4차 전역에서, 군사 분야에서 교조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부 지휘관들이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의 전법을 사용하고, 군사지휘관들이 공부를 게을리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전법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놓은 새로운 전법으로 오해하면서 남을 숭배한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민군이 중국지원군의 전법을 새로운 전투방식인 것처럼 알고 따라 배우자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민군대 지휘관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 경험이나 군사규정을 대할 때 창조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1951년 1월 28일),” 『김일성전집 13』, 94~97쪽. 그러나 이때에도 중국지원군과의 친선 단결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52) 라주바예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1951년 9월 10일);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8쪽에서 재인용.

북한에 있는 우리 군사고문단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동지들은 중국지원군의 지휘부와 견고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동지들은 평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중국지원군 사령부를 방문한 적도 거의 없으며 그것조차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결국 중국지원군 사령부의 동지들 또한 북한 동지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어떤 북한 동지들은 1951년 초 중국 지휘부가 조선의 최종 해방을 위해 침략주의자들의 패배를 활용하려 들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⁵³⁾

심지어 북한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창설 이후에도 “인민군의 통일적 지휘 아래” 조선인민군과 중국지원군이 싸웠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지도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⁵⁴⁾ 이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존재와 사령부 내 지원군의 주도적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애써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1월 말부터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 제4차 전역이 시작되어 북한과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휴식을 주장한 평터화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예기치 않았던 제4차 전역은 유엔군이 2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유엔

53)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the DPRK, 1 April 1955, RGANI, Fond 5, Opus 28, Delo 314, Listy 34~59.

54) 1951년 2월 25일에 발간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 『근로자』에는 “지금 조중 량국 인민의 공동한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조선에서 격멸 소탕하기 위하여 조선 전선에 참가한 영웅적 중국 인민의 지원 부대들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의 통일적 지도하에 조선인민군대와 함께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며 조중연합군 속에서 인민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리문일, “조선 전선에의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 부대의 참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의의 사업이다,” 『근로자』, 제2호(1951), 30쪽.

군의 대반격으로 조중연합군은 38선까지 후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월 14일에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38선 4차 전역은 1951년 1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무려 세 달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유엔군과 조중연합군은 38선 남북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3. 정전협정과 전쟁포로(POW) 문제

1) 중국의 협상태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

1951년 중반부터 전황이 고착되어 공산 진영과 유엔군은 휴전협상에 접어들었다. 상황이 점점 침체되자,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조중연합군이 재정문제와 전선에서 군사작전 수행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알렸다. 마오쩌둥은 이제 또 다른 인천상륙작전이 후방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조선전쟁은 중국군이 현대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트루먼 정부를 동요시킬 뿐만 아니라 영·미군의 군사적 위신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⁵⁵⁾ 다만 그는 협상을 적에게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북한과 중국이 유엔군과 휴전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지속은 제3차 대전의 발발을 지연시킨다고 믿었던 스탈린의 고집으로 인해 1951년 가을까지도 공산 진영은 협상에서 좀처럼 양보하려 하지

55) Telegram from (Stalin) to Mao Zedong, via Krasovsky, 5 June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39, Listy 17~18.

않았다. 스탈린은 미국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정전체결의 조속한 성사를 원하는 쪽은 바로 미국이므로 조·중이 협상에서 성급함을 보이거나 협상 진척에 관심 있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예상외로 쉽게 풀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전쟁포로(prisoners of war: POW)의 교환문제는 중·소 모두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여긴 탓에, 공산 진영과 유엔군 측은 일명 ‘협상하며 전투하기’를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었다.⁵⁶⁾

한편 전쟁의 장기화는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이 “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조선을 지원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여겼다.⁵⁷⁾ 심지어 중국의 지원에 불만족스러워하던 일부 북한 지도자들은 소련에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려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들에게 소련은 민주진영의 주요 보루 지역이므로 성급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⁵⁸⁾ 한편 휴전협상에 북한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던 남일은 한때 중국지도부, 특히 협상에 같이 참여한 리커닝이 미국에 지나칠 정도로 순종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적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나, 조·중 협상단의 생각이 중국 협상가들에 의해 회담 초기에 모두 들통이 나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일성과 박헌영은 중국 정부가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56) VKP(b) CC Politburo Decision with Approved Message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19 November 1951, APRF, Fond 3, Opis 65, Delo 828 (9), Listy 42~43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 64.

57) Document No. 68, Political Attitudes and Korean-Chinese Re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rmistice Talks, 10 September 1951, James Person(ed.),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June 2010.

58) *Ibid.*

는 의견을 소련 정부에 조심스럽게 표명하였다.⁵⁹⁾

그러나 북한지도부의 완고한 휴전협상 태도는 전쟁으로 인한 피로, 경제 붕괴, 미국의 공중 폭격 증가, 전선에서의 실패, 민주주의 선전 증가 등등 주변 상황에 의해 전쟁 종료 요구가 드높아지자 빠른 시일 내에 휴전을 하자는 방향으로 급전환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지도자들은 정전 협상에 빨리 서명하려 하였다. 정전협정 논의가 결렬 되자, 북한지도부는 전쟁을 통해 분단된 조선을 통일시키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전전(戰前)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적과 타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전쟁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은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으며 혹시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휴전 제안은 전쟁의 최종 승리에 대한 희망이 날 날이 부서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휴전이 성립되던, 전쟁이 계속되던 간에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⁶⁰⁾

2) 스탈린의 중재: 협상의 지연과 전쟁의 지속

1952년 5월,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사령관과 교대하여 클라크(Mark W. Clark)가 유엔군의 세 번째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전쟁포로 문제는 뚜렷한 진전 없이 계속 난항 중이었다. 7월 3일, 중국과 북한은 전쟁포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했으나 협상은 진전의 기미가

59)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99~407쪽.

60) Document No. 68, Political Attitudes and Korean-Chinese Re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rmistice Talks, 10 September 1951,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보이지 않았으며, 미군의 무차별 공중폭격은 계속되었다. 7월 16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제 협상이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군사작전을 줄이고 소극적인 수비로 전환해왔으나 그 결과 미국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북한에 지속적인 병력 손실과 물질적 피해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낙담하였다.⁶¹⁾ 북한지도부는 이제 미군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보다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다. 전쟁에서 오는 피로는 당시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으며, 일부 간부들은 정전 협상에 대한 환상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침체된 분위기와 싸워야만 했다.⁶²⁾

그러나 마오쩌둥은 미국이 제시하는 정전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공산 진영은 정치·군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유리한 고지에서 정전협상 체결을 희망하였으므로 원하는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가 반드시 공산 진영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미국은 앞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아시아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될 것인 반면에 소련은 모든 인민들

61) 이날 하루 동안 1,254회의 폭격이 이루어져 2만 3,000갤런의 네이팜탄이 투하되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미국이 군사적인 피해를 입힘으로써 자신들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몰아세우고 있다며 소련에 공군력 증강을 요청하였다. CIPHERED Telegram, Kim Il Sung to Stalin via Razuvaev, 16 July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8, Listy 65~68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40~43.

62) Document No. 94, 8 August 1952, Report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the Period of 25 June to 25 July 1952,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의 혁명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 제3차 세계대전을 지연시킬 것이라 봤다. 따라서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적에게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³⁾

북한의 어려운 내부 사정과는 별개로, 김일성은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마오쩌둥의 강경책을 지지하는 척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포로송환 문제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중국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미국이 8만 3,000명의 포로를 송환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자 북한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적이 있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의 교활한 술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저우언라이는 8만 3,000명의 포로 중 단지 6,400명만이 중국인 포로라며, 미국은 원래 1만 3,600명의 중국인 포로를 추가로 송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7만 6,000명의 조선인 포로들만을 석방하여 북한을 만족시키고 중국과 갈등을 초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⁶⁴⁾

급기야 중국은 8월 중순에 저우언라이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소련에 보내 중국의 5개년계획 실행문제와 한국전쟁을 주제로 스탈린과 회담하도록 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휴전협상에 대한 스탈린의 의견을 구하고 그가 직접 북한을 설득해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저우언라이는 모든 포로를 송환해야 한다는 기존의 견해에 한 치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오쩌둥의 입장을 스탈린에게 전했다

63) Ciph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15 July 1952 telegram from Mao to Kim Il Sung and 16 July 1952 reply from Kim to Mao, 18 July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3, Listy 72~75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90~93.

64) Minutes of Conversation between I. V. Stalin and Zhou Enlai, 20 August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l. 54~72.

다.⁶⁵⁾ 마오쩌둥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중국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저우언라이 역시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조선에서 미국의 공세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세계대전이 15년에서 20년까지 연기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결코 제3차 세계대전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⁶⁶⁾ 스탈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인명 손실 외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은 기껏해야 공습 능력과 원자탄만 갖고 있을 뿐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전쟁을 벌일 수 없을 터, 북한지도자들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⁷⁾ 결과적으로, 저우언라이와 스탈린은 미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하되 미국이 고집을 굽히지 않는 이상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일치했다.

스탈린은 북한지도부를 설득시키고자 김일성과 박헌영, 평터화이 및 기타 8명의 대표단을 비밀리에 모스크바에 초청하였다. 1952년 9월 1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대표단은 그로부터 3일 후인 9월 4일에 스탈린, 말렌코프 등의 소련지도부와 회담을 가졌다.⁶⁸⁾ 스탈린은 우

65) 반면 북한은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송환하여 돌아올 전쟁포로보다 많으며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66) Minutes of Conversation between I.V. Stalin and Zhou Enlai, 20 August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l. 54~72.

67) *Ibid.*

68) 이때 김일성은 북한지도부의 분위기가 매우 양호하고 인민군의 사기도 충분하다며 다소 의외의 발언을 했다. 스탈린은 곧 박헌영에게 김일성의 말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박헌영 역시 인민들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답했다. 군대 내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김일성과 평터화이는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김일성은 모든 상황이 순조롭지만 그것은 미 공군의 공중폭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미 공군에 의한 북한의 피해는 날로 증폭되었으며 북한지도부는 10연대의 대공포대를 소련에 요청하였다.

선 북한 인민들은 전쟁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이들은 영웅칭호를 들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서 그는 김일성에게 정전협상 과정에서 북·중의 의견 불일치를 의식한 듯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김일성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견은 없다며 불협화음 의혹을 일축하였으나 양국 모두 정전협상이 하루 빨리 타결되길 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⁶⁹⁾ 스탈린은 조속한 전쟁의 종결을 원했던 김일성과는 정반대의 구상을 하고 그를 설득하려 했다. 스탈린은 조선전쟁의 지속은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계획을 최대한 늦출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조중이 미국의 포로교환 조건에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김일성에게 중국 대표들과 정전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이며, 중·소는 미국이 제안한 전쟁포로교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서 김일성에게 일단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지 기다려 보았다가 추후에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을 주장하자고 제안하였다.⁷⁰⁾

김일성은 한국전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의 입장이 확고한 이상, 전쟁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종결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탈린의 제안에 수긍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1952년 9월 12일 평더화이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왔으며 9월 14일에는 조중연합사령부의 명령으로 반격 작전을 개시했다.⁷¹⁾ 9월 19일, 중·소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현재보다 개선될 때까지 조·중 협상대표단은 미국에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기로

69) Document No. 96, Record of a Conversation between Stalin, Kim Il Sung, and Peng Dehuai, 4 September 1952,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70) *Ibid.*

71)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전쟁』, 276쪽.

로 합의하였다.⁷²⁾ 9월 28일에는 유엔군은 포로 문제에 대해 최종 제안을 하였으나 10월 8일 북한과 중국은 다시 한 번 거부의를 밝히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 하였다. 같은 날 애치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공산 진영이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회담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회담이 결렬되었다.

4. 스탈린의 사망이 한국전쟁의 종결에 미친 영향

1) 소련 신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사망 이후 새로 등장한 소련의 지도부는 전쟁 중 정치 선동의 방향뿐 아니라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많은 정책들의 방향을 급작스럽게 바꾸었다. 새로 들어선 말렌코프(Georgy Malenkov) 체제는 스탈린과 달리 전쟁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내부 결속을 위해 소련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키는 한반도 문제와 같은 외부의 분쟁들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소련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는 한국전쟁이 소련과 중국, 북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으며 이제는 전쟁을 정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탈린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소련에 체류하였던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의 후계자 말렌코프가 긴장완화와

72)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Zhou Enlai, 19 September 195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s. 6~7(Winter 1995~96), pp. 15~17;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 114.

평화 공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⁷³⁾ 저우언라이는 소련에 체류하면서 말렌코프, 베리아, 몰로토프 등 소련 수뇌부와 회담을 가졌으며 24일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26일에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아마 소련지도부와 포로교환 문제 및 정전 협정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 소련 정부는 소련의 한국전쟁에 대한 변화된 입장이 반영된 각료이사회 결의안의 초안을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 전송하였다.

소련 정부는 현재 상황 및 이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한국전쟁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소련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온 세계의 견고한 평화와 조선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언제나 간절히 희망하는 우리 소련과 중국 인민들의 깊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이제까지의 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선전쟁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노선을 기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 중국과 조선인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평화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민족들의 이익에 따라 중국과 조선이 전쟁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함이다.⁷⁴⁾

소련 정부는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및 UN주재 소련 대표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는 한편, 소련 각료회의는 “현 상황에서 소련·북한·

7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전쟁』, 289쪽.

74) Resolution,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Draft Letters from Soviet Government to Mao Zedong and Kim Il Sung and Directive to Soviet Delegation at United Nations, 19 March 1953, APRF, Fond 3, Opis 65, Delo 830, 5a, Delo 4, Papka 11, Listy 54~65.

중국 정부가 ...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기본노선에 합의를 한다면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⁷⁵⁾ 이 말은 곧 포로송환문제와 관련하여 북방삼국 정부 간의 완전한 의견일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삼국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전회담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소련의 변화된 입장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이를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일성은 조속한 정전협상의 체결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어려움, 국가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고 전후 복구에 착수하려 했다. 따라서 소련의 정전회담 재개 제안에 김일성은 완전한 지지를 보냈다. 그는 더 이상의 회담연기는 북한과 중국, 나아가 전 공산주의진영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지금도 전선과 후방에서 하루에 300~400명씩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제 공산 진영의 주도로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⁷⁶⁾

그리하여 1953년 3월 28일 김일성과 평터화이는 부상포로에 대한 즉시교환제에 회신하여 부상자나 병자인 포로들을 송환하기로 동의했다. 북한과 중국은 이번 전쟁포로들의 송환문제가 모든 포로의 송환문제 해결로 이어져 하루 빨리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⁷⁷⁾ 그로부터 이틀 후, 중국 정부는 미국의

75) *Ibid.*

76) Telegram from Kuznetsov and Fedorenko in Pyongyang, 29 March 1953,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120~122.

77) Document No. 109, Report, Polish Embassy in the DPRK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Warsaw, 1 March-30 April,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역시 이 모든 내용은 소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자발적 귀환 원칙을 조건부로 받아들일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중국의 베이징방송이 조.중 정부의 제안을 전달하는 저우언라이의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귀환을 바라는 포로는 정전과 동시에 인도하고 나머지 포로는 중립국에 인도하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3월 31일, 김일성이 저우언라이의 이 같은 제안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몰로토프 소련 외상이 김일성의 성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⁷⁸⁾ 모두 예정되었던 수순이었으며 소련이 지시한 답안 그대로였다.

놀랍게도 포로교환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던 마오쩌둥은 변화된 소련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 사실 그동안 휴전협정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내뱉었던 강경한 발언들은 스탈린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왔다. 스탈린의 생전에는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포로교환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나머지 김일성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하며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1953년 3월을 기점으로, 소련이 자유진영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모색하면서 기존의 한반도정책이 변화되자 전쟁이 장기화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소멸되었다. 스탈린 사망 후 일어난 소련의 대외정책과 전쟁방침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마오쩌둥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회담에서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계속 치러야 한다는 것이 마오쩌둥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쟁 당사자인 북한과 전쟁의 지휘자인 소련이 조속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이상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⁷⁹⁾ 따라서 소련지도부의 뜻이 김일성의 전쟁 종결 입장과

78) 『人民日報』 1953年 3月 29, 30日;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전쟁』, 290쪽; Document No. 110, Statement of Molotov,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n the Korean Question, 31 March 1953,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마오쩌둥은 더 이상 전투를 전개하지 않고 강력히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는 스탈린의 생전과 동일하게 상하수직적인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은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지도부는 스탈린이 대외적으로 내세웠던 평화우호적인 수사여구를 변화된 입장에 맞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그들이 실제로 정전협정에 얼마나 완고하였는지를 교묘하게 감추었다. 1953년 3월 31일, 몰로토프가 발표한 한국전쟁에 관한 성명은 “소련은 언제나 정전의 성립과 한반도 전쟁의 종결을 향한 모든 과정들을 지지해왔다. 소련 정부 대표인 스탈린이 1950년 7월 네루 수상의 호소에 보낸 답신에 최초로 이러한 입장이 표명된 바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의 입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뜻을 이어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⁸⁰⁾ 마오쩌둥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으며 결국 미국과 정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회담에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79) 선즈화 역시 정전회담 과정에서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는 김일성이 조선의 실질적인 이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가능한 조속히 전쟁을 종결하고 전후 복구에 전념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한다. 반면 마오쩌둥은 아시아 혁명에서의 자신의 지도적 위치, 동북아와 아시아 전역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정전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417쪽.

80) Document No. 110, Statement of Molotov,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n the Korean Question, 31 March 1953,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2) 정전체결에 대한 북·중의 엇갈린 평가

1953년 4월 11일, 공산 진영의 긍정적인 신호를 기점으로 판문점에 서 연락관 회의가 재개되었다. 연락관 회의 결과, 부상 및 질병을 앓고 있는 전쟁포로들의 송환문제 해결을 다룬 조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포로송환이 시작됐다.⁸¹⁾ 송환이 완료된 후 양측은 4월 26일부터 정전협정 서명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약 한 달여간의 회담 끝에 6월 4일 공산 측이 5월 25일의 UN 측 제안을 거의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6월 8일에는 「중립국 송환위원회 관련 협정(Terms of Reference for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전쟁포로 문제에 타협했다. 이어 6월 16일에는 쌍방 참모요원이 실제 대치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들 후인 6월 18일, 전쟁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이승만은 일방적으로 전쟁포로 2만 7,000명을 석방하였다. 이승만의 결정은 정전협정 체결 후 미국이 전쟁시와 유사 수준의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자 남한이 방기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승만의 돌발행동을 기회로 중국은 다시 한 차례의 전투를 전개해 유리한 정전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조속히 정전협정을 체

81) UN은 총 5,800명을 송환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5,100명이 조선인민군, 700명은 중국지원군이였다. 반면 조중연합군은 총 600명의 전쟁포로를 송환하기로 결정, 이 중 450명이 국군, 150명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 국적이였다. 양측은 포로를 송환하는 날인 4월 20일부터 공산 진영은 매일 100명씩, 유엔 측은 500명씩 송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4월 26일 조중연합군 측은 모든 부상 및 병중인 포로들을 송환 완료하였다. 조중연합군은 당초 600명의 포로를 송환하기로 하였으나 국경 근처 야전 병원에 있던 포로들과 송환 기간에 새로이 잡힌 포로들을 추가적으로 송환함으로써 총 684명의 포로들을 송환했다.

결하고 싶었던 북한은 이승만의 돌발적인 협정서명 반대행위도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평터화이는 마오쩌둥의 지지 아래 비교적 대규모의 돌격전을 전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⁸²⁾ 이는 양측이 협상에 서명하기 전에 전선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평터화이는 “이승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정전협정의 서명이 방해받아 상황이 변화하였으며 조약에 현 상황에 기초하여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의 수정을 제안”할 셈이었다.⁸³⁾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지난 3년간 계속되었던 군사행동은 이날을 기점으로 모두 중지되었으며 북한 인민들은 정전협정 체결을 크게 환영하였다. 말렌코프는 소련 각료회의를 대표해 북한 정부에 보낸 서신에서 정전협정의 서명이 평화와 민주진영 전체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한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다. 말렌코프는 또한 전쟁의 종결과 함께 북한은 이제

82) 이종석은 이승만의 일방적인 전쟁포로 석방이 휴전을 향한 공산 측의 갈망을 가로막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90쪽;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417쪽. 김계동은 중국의 공격이 남한군의 휴전반대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치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등 휴전협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51년 5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세였다는 점, 결국 한국군을 수천 미터 후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은 공산 진영이 남진 통일 계획은 포기하였더라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65쪽.

83) Document No. 114, Telegram, Soviet Chargé to PRC to the Chairman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Draft Reply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o the Letter of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UN Multinational Forces and with a Note from the Chinese-Korean Delegation about the State of the Armistice Negotiations, 3 July 1953, APRE, Fond 3, Opus 65, Delo 830, Listy 136~147,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내부 통합을 꾀하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전후 복구에 소련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⁸⁴⁾

한편 정전협정을 체결하고도 몇 차례의 전투가 더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마오쩌둥의 입장은 북한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튿날,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일성은 협정체결 기념 연설에서 전후 복구에 힘을 쓸 것을 주장하였던 반면, 마오쩌둥은 자신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일 년 후에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던 것이다. 7월 28일, 평양 시내에서는 행진과 김일성의 기념 연설이 있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행사의 성격을 적에 대한 북한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전을 북한의 승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일성은 연설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힘을 기울일 것을 밝힘으로써 전후복구가 향후 북한의 핵심과제로 떠올랐음을 대내외에 알렸다.⁸⁵⁾ 이어 전날 말렌코프의 편지에 대한 답으로써 지난 3년 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소련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했다. 김일성은 이어 북한이 앞으로 통일과 경제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며 소련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⁸⁶⁾

84) Document No. 117, Report, Malenkov to Kim Il Sung, 27 July 1953, NKIDP,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85) Document No. 112, Report, Polish Embassy in the DPRK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Warsaw, 26 June 1953~31 July 1953,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정전 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1953년 7월 28일),” 『조선중앙년감 195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82~87쪽.

86) Document No. 118, Telegram, Kim Il Sung to the Chairman of the Soviet Council of Ministers on the Occasion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반면 마오쩌둥은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에 대해 소련 외무부상이자 주(駐) 중국대사인 쿠즈네초프(Vasili Kuznetsov)에게 상세히 털어놓으면서 적은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정전을 체결하였음을 강조하고 전쟁을 조금 더 길게 치렀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장담하였다. 마오쩌둥은 “적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면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은 군사적 측면에서 육지에서 진격이 불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선을 강력하게 수비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국지전뿐만 아니라 전선을 뚫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마오쩌둥은 그러나 곧이어 자기모순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완전히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1년 정도 미국과 전쟁을 더 치르게 되었다면 공산 진영이 유리한 상황에서 전세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⁸⁷⁾ 이 말은 곧 조중연합군의 뒤쳐진 군사력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서 정전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공군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장기화가 실보다는 득이 되고 종내에는 공산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소련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오쩌둥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오쩌둥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세가 공산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전보다는 전쟁의 지속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결론내리고 싶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에겐

29 July 1953,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87) Telegram from Kuznetsov to Soviet Foreign Ministry, regarding Meeting with Mao Zedong, 29 July 1953, APRE, Fond 3, Opis 65, Delo 830, Listy 187~189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156~158.

스탈린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못내 아쉬웠음이 분명하다.

5. 나가는 말: 갈등과 화합을 통해 새롭게 발전된 북·중관계

분명 한국전쟁 시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언제나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갈등과 화합을 반복해왔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은 피멸위기에 처한 북한에게 구원의 동아줄인 동시에 또 다른 강대국의 간섭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은 김일성의 군사 능력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전쟁에서 지휘권을 제한하였으며, 조중연합군은 남진과 휴식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정전협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갈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과 중국의 협의를 통한 것보다는 대부분 소련이 중재적 역할을 맡아 중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스탈린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으나 모스크바의 간섭 아래 중국이 북한에 강요하는 방식은 중국에 대한 원망을 축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중국지원군의 주둔이 결정됨으로써 김일성은 북한이 온전히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제 자신이 믿어야 할 것은 소련이나 중국이 아니며, 북한의 운명은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참전은 분명 북·중관계의 긴밀한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소련의 군사원조가 예상을 밑돌았던 반면,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지 겨우 일 년 남짓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3년이나 투입하였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 큰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조중 사이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참전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원군의 공로를 높이 치하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회담 초기에 북한이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전쟁을 서둘러 끝내기를 희망하면서 중국의 협상태도에 대한 불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조중연합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갈등들은 정전 체결로 모든 적대적 군사행위가 중단되자 자연스레 해체하게 되면서 해소되었다. 중국의 지원군의 기능 또한 북한의 전후 경제의 복구 건설로 전환되어 지휘권 문제 역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한때 협상에서 중국의 소극적 태도와 호전적 성격을 비난하였으나, 전쟁이 끝나자 중국이 지원군 부대를 파견한 것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가장 정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일성은 북한과 중국을 “순치의 관계”라고 일컬었으며 중국 인민과 조선 인민 사이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통해 형제적 친선관계가 맺어져 있다며 이러한 관계는 한국전쟁에서 강화되어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북·중관계를 ‘혈맹’, ‘순망치한’으로 일반적인 동맹의 의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관계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 접수: 6월 28일 / 수정: 7월 26일 / 채택: 7월 3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일성, “1951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1951년 1월 1일),”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 _____, “우리의 전범으로 싸워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1951년 1월 28일),” 『김일성전집 13』.
- _____, “정전 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1953년 7월 28일),” 『조선중앙년감 195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1년 5월 3일),” 『김일성전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299호: 신문 ‘전우’를 발간할데 관하여(1951년 6월 14일),” 『북한관계사료집 24』(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 _____,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과 한 담화(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평양시 해방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호소문(1950년 12월 9일),”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리문일, “조선 전선예의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 부대의 참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의의 사업이다,” 『근로자』, 제2호(1951).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선즈화(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서울: 선인, 2010).
 시모토타이 노부오(下斗米 伸夫),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쑨요우지에(孫佑杰), 『압록강은 말한다』, 조기정·김경국 옮김(서울: 살림, 1996).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서울: 오름, 2009).
 홍쉐즈(洪學知),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서울: 고려원, 1992).

2) 논문

선즈화(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제3권 제1호(2000).
 양영조, “6·25전쟁시 중국군의 지구전 전략과 군사개혁: 조중연합군사령원 팽덕회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33집(2005).

3. 기타 자료

1) 외교 문서: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① Publications

Person, James(ed.),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compiled in connection with the 16~17 June 2010 conference *New Documents and New Histories: Twenty-First Century Perspectives on the Korean War*.

② Digital Archive

Ciphered Telegram, Filippov(Stalin) to Mao Zedong and Zhou Enlai, 1 Octo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34, Listy 97~98.
 Ciphered Telegram, Kim Il Sung to Stalin via Razuvaev, 16 July 1952, APRF,

- Fond 45, Opis 1, Delo 348, Listy 65~68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40~43.
-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15 July 1952 telegram from Mao to Kim Il Sung and 16 July 1952 reply from Kim to Mao, 18 July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3, Listy 72~75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90~93.
-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transmitting 4 January 1951 message from Peng Dehuai, Kim Son, and Pak Il U to Kim Il Sung, 7 January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36, Listy 88~90.
-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Stalin) Conveying 19 January 1951 Telegram from Peng Dehuai to Mao Regarding Meetings with Kim Il Sung, 27 January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37, Listy 37~40.
- Ciphered Telegram, Roshchin to USSR Foreign Ministry, 13 January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36, List 122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 13.
- Ciphered Telegram, S. E. Zakharov, Soviet Military Representative in Beijing, to Fyn Si (Stalin), 2 November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35, Listy 71-72 and AVPRF,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187~188.
-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Zhou Enlai, 19 September 195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s. 6~7(Winter 1995~1996).
-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the DPRK, 1 April 1955, RGANI, Fond 5, Opis 28, Delo 314, Listy 34~59.
- Letter from Kim Il Sung to Stalin, 2 November 1950, Printed in Voyna v. Korea 1950~1953gg: vzglyad cherez 50 let[The 1950~1953 War in Korea; the View After 50 Years].
- Minutes of Conversation between I.V. Stalin and Zhou Enlai, 20 August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l. 54~72.
- Resolution,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Draft Letters from Soviet Government to Mao Zedong and Kim Il Sung and Directive to Soviet Delegation

at United Nations, 19 March 1953, APRF, Fond 3, Opus 65, Delo 830, 5a, Delo 4, Papka 11, Listy 54~65.

Telegram from (Stalin) to Mao Zedong, via Krasovsky, 5 June 1951, APRF, Fond 45, Opus 1, Delo 339, Listy 17~18.

Telegram from Kuznetsov and Fedorenko in Pyongyang, 29 March 1953, AVPRF, Fond 059a, Opus 5a, Delo 5, Papka 11, Listy 120~122.

Telegram from Kuznetsov to Soviet Foreign Ministry, regarding Meeting with Mao Zedong, 29 July 1953, APRF, Fond 3, Opus 65, Delo 830, Listy 187~189 and AVPRF, Fond 059a, Opus 5a, Delo 5, Papka 11, Listy 156~158.

Telegram from Mao Zedong to I. V. Stalin, transmitting 14 January 1951 Message from Mao to Peng Dehuai with Message from Kim Il Sung, 16 January 1951, APRF, Fond 45, Opus 1, Delo 337, II. 1~3.

Telegram from Mao Zedong to Stalin, via Zakharov, 15 November 1950, APRF, Fond 45, Opus 1, Delo 335, Listy 116 and AVPRF, Fond 059a, Opus 5a, Delo 4, Papka 11, List 189.

Telegram from Stalin to Mao Zedong, 1 December 1950, APRF, Fond 45, Opus 1, Delo 336, List 5.

Telegram from Stalin to Shtykov, 1 November 1950, APRF, Fond 45, Opus 1, Delo 347, and AVPRF, Fond 059a, Opus 5a, Delo 3, Papka 11, List 161.

VKP(b) CC Politburo Decision with Approved Message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19 November 1951, APRF, Fond 3, Opus 65, Delo 828 [9], Listy 42~43 and AVPRF, Fond 059a, Opus 5a, Delo 5, Papka 11, List 64.

2) 기타

Jian, Chen, *Mao's China and the Cold War*(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DPRK-PRC Conflicts and the Soviet Union's Role during the Korean War

Kim, Bomi(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Soviet's power of arbitrating the disputes during the Korean War. This study claims that North Korea and China did not always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they were often at odds with some events. Since the entry of Chinese forces into the Korean War in October 1950, North Korea and China had been in conflict with the establishment and control of Sino-Korean Joint Command, the problem of advance toward South, and the ways to deal with armistice negotiations. The Soviet Union was in charge of arbitrating these conflicts arising between them. However, conflict resolution was not involved in comprehension or concessions, but China's claim was to be carried through the Soviet's power of persuasion on North Korea. That is why Kim Il Sung once sensed that China was trying to limit North

Korea's autonomy. Nonetheless, as the war ended, most conflicts were unaffectedly relieved and North Korea was deeply impressed with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hiding its discontentment. During the 3 years of war, North Korea and China had repeated discord and reconciliation in joint military operations, and Kim Il Sung described the relationship as a 'blood alliance'.

Keywords: North Korea-China relations, Sino-Korean Joint Command, the Korean War, the USSR, Armistice Talks